

전남광주 27개 시구군 음식, 나주 영산강정원서 맛본다

전남과 광주 27개 시구군의 대표음식을 맛보고 명인·셰프의 요리를 즐기는 '제31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오는 23~25일 나주 영산강정원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는 음식 전시와 함께 디너쇼, 요리 체험, 정원 피크닉 등을 마련해 관람객이 직접 맛보고 참여하는 미식축제로 운영한다.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남도의 맛으로 하나 되는 통합 특별시'를 슬로건으로 지역별 음식과 식문화를 소개한다.

안유성 대한민국 조리명장과 천상현 셰프, 사찰음식으로 알려진 정관 스님, 프랑스 명장 요리사협회(MCF) 셰프들이 특별

23~25일 남도음식문화큰잔치...명인 밥상·셰프 디너쇼

요리체험부터 야간 피크닉까지...미식 프로그램 예매 시작

미식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개막식은 23일 오후 6시 '남도의 맛, 하나의 밥상이 되다'를 주제로 열린다.

남도음식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주제공연을 통해 전남과 광주의 화합을 표현할 예정이다.

축제 첫날 스페셜 디너쇼에서는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안유성 명장과 프랑스 명장 요리사협회 셰프들이 '나주의 부엌'을 선보인다. 축하공연에는

가수 안성훈이 출연한다.

24일에는 백양사 정관 스님의 음식 시연과 특별요리가 마련된다. 청와대에서 20년간 근무한 천상현 셰프는 남도 식재료를 활용한 디너쇼를 진행한다.

이날 축하무대는 가수 이상우와 변진섭이 꾸민다.

지역의 음식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남도음식명인의 식탁'에서는 12명의 명인이 차리는 가정식 한상



을 만날 수 있다. '남도의 맛'은 27개 시구군의 대표음식을 지역별 자연환경과 식문화에 따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권역은 숲과 산맥, 다도해와 서남해안, 광주 5미, 서해안과 영산강, 갯벌과 만 등

5개로 구분한다.

지역마다 다른 식재료와 조리법, 음식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전해 남도 식문화의 다양성을 알릴 계획이다.

직접 음식을 만들어보는 체험도 마련된다. 명인·어린이 쿠킹클래스와 발효음식 체험, 남도 반찬 만들기 등이 진행되며, 남도요리 경연대회와 시군구 대표음식 경연대회도 열린다.

행사장에서는 지역 먹거리와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대표음식·남도식품 판매장을 비롯해 지역 식품 브랜드와 청년 디지털을 소개하는 공간, 푸드트럭 등을 운영한다.

영산강정원에서 음식과 휴식을 함께 즐

기도록 체류 공간도 조성한다. 낮에는 돛자리 피크닉존과 미식쉼터, 정원 포토존을 이용할 수 있고, 저녁에는 버스킹 공연과 야간 피크닉이 이어진다.

오미경 통합특별시 관광정책과장은 "전남과 광주의 다양한 음식문화를 잇고 남도미식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가족, 친구와 함께 영산강정원을 찾아 남도의 맛과 멋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페셜 디너쇼'와 '남도음식명인의 식탁', '남도의 맛' 참가비는 프로그램별 회차당 1만원이다. 예매는 13일부터 티켓링크에서 진행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조선 후기 '동춘선생수찰' 국가유산 보물 신청

송준길 친필 96통 간찰첩...실록·승정원일기 보완 자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대학교 도서관이 소장한 '동춘선생수찰'을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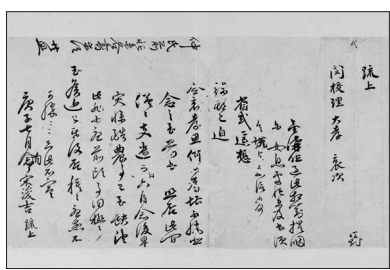
'동춘선생수찰'은 조선 후기 성리학자이자 예학자인 동춘당 송준길(1606~1672)이 사위 민유중(1630~1687)을 비롯한 민씨 집안에 보낸 친필 간찰(편지) 96통을 천(天)·지(地)·인(人) 3첩으로 엮은 간찰첩이다.

편지는 1680년(현종 1), 1666년(현종 7), 1670년(현종 11) 세 시기에 쓰였으며, 민유중이 흥분관 교리, 전라도 관찰사, 평안도관찰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해당한다.

간찰에는 기해예송 이후의 정국, 1666년 현종과 인선왕후의 운양온천 행차와 행궁 상황, 청나라 사신의 동향, 전라도 관찰사 탄핵 사건 등 당시 고위 관료 사이에 오간 정보와 인식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이에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관련 사료를 보완하는 1차 자료로 평가받는다.

또한 장인과 사위 사이에 오간 약제·물품, 딸과 외손의 안부 등 17세기 명문 가문의 생활사도 함께 엮을 수 있다.

기존 보물로 지정 관리 중인 '송준길 행초 동춘당 필적', '송준길 행초 서증



동춘선생수찰

손병하' 등의 자료에 비해 '동춘선생수찰'은 96통 모두 원본이며 피봉(결봉)·별지와 송준길의 작명이 다수 남아 있다. 또 실제 안부와 소식을 주고받으며 정교한 행초체로 쓴 필적이 대량으로 남아 있어 희소성과 연구사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자료는 수신자인 민유중의 후손가에 전해지다 후대에 3첩으로 장첩된 것으로 추정되며, 1955년 전남대학교 도서관에 기증·등록된 이후 고문헌실 귀중본으로 관리돼왔다.

'동춘선생수찰'의 국가 지정 문화유산 등록 여부는 국가유산청의 검토와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임철순 문화유산자원과장은 "동춘선생수찰은 조선 후기 명현의 육성과 필적을 원본 그대로 전하는 귀중한 기록유산이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발언하는 한병도 원내대표

전남·광주 평생학습인, 여수서 첫 통합박람회

16~17일 세계박람회장...100여개 부스서 전시·체험

전남과 광주의 평생학습 성과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첫 통합 평생학습박람회가 오는 16~17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다. 기존 전남 중심의 행사에 광주와 5개 자치구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규모를 넓혀 학습자 간 교류와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배움의 향해, 이음을 향해'

를 주제로 평생학습인과 문해교육 학습자 등 1000여명이 참여한다.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전남·광주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여수시가 공동 주관한다.

행사장에는 100여개의 홍보·체험부스가 들어선다. 평생교육 기관·단체들이 올해 추진한 학습 성과와 작품을 소개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을 운영한다. 학습동아리 경진대회와 작품 전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등을 통해 학습자들이 배운 내용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글을 배우며 달라진 학습자들의 일상을 만날 수 있다. 시화전에는 학습 성과를 담은 작품이 전시되며,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교육부장관상을 받은 정영희 학습자가 들어선다. 문해골든벨에서는 학습자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겨룬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산단 인근 주민 건강모니터링 하남·수원동 참여 100명 모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환경보건센터와 함께 광산구 하남동과 수원동 일대 주민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인근 주민 건강모니터링'을 추진. 오는 15일까지 참여 주민 100명을 모집한다.

검사는 전남대학교병원과 연계해 진행한다. 검사 일정은 하남동은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수원동 일대는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다. 모집 인원은 하남동 40명, 수원동 일대 60명 등 총 100명이다. 참여대상은 해당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연구목적과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고려해 최종 참여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포스터에 있는 큐알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참여 주민에게는 건강검진과 체내 중금속·화학물질 등 10종 환경오염물질 검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검사 결과는 개인별 우편으로 안내하고, 전남대학교병원 전문의 상담을 통해 결과에 대한 이해와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산업단지 인근 주민의 건강상태와 체내 유해물질 노출 수준을 파악하고, 주민 스스로 건강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 건강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탠다. 양동민 기자

세척력이 우수하고,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비닐하우스·차광페인트 제거제



고객센터 062.654.7896

010.7564.4706

이 메 일 tank10323@naver.com

홈페이지 www.kcsoap.com



광주공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양일로 137-1

담양공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169

